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자	2022년 11월 8일(화) 총 3매		
담당 부서	해양항만과	담당자	• 해양산업팀장 • 담당자 나민환 ☎440-4846 정유진 ☎440-4848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크루즈관광객 선점위해 대만 최대규모 관광박람회 참가

- 11월 4일부터 8일까지 ‘타이베이 국제여전’ 서 다채로운 인천 매력 알려 -
- 자가격리해제, 무비자입국 등 관광 재개하는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추진 -
- 대만 항만국, 크루즈 기항지 방문해 협력방안도 논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와 인천관광공사, 인천항만공사는 자가격리해제* 및 무비자입국 등 빚장을 연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 선점 및 유치를 위해 대만 최대규모 관광박람회인 ‘타이베이 국제여전’에 참가했다고 밝혔다.

*대만 정부 2022.10.13.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해제

올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타이베이 국제여전(ITF*)은 매년 35만여명(2019년 기준)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규모 관광 박람회다. 올해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40여개국 300여개 기관이 참가했다.

*ITF : International Travel Fair

인천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크루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크루즈 기

항지로서의 인천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.

대만 크루즈관광객 방인을 위해 웅사여행(雄獅旅遊), 동남여행(東南旅遊), 백위여행(百威旅行) 등 대만의 주요 크루즈 여행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, 인천의 ▲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▲공항과 인접한 입지여건 ▲현지문화 체험을 포함한 다채로운 관광지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.

또한, 대만 항만국을 방문해 크루즈선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. 이어 대만의 주요 크루즈 기항지인 기륭항, 가오슝항을 방문해 선사 및 여행사 지원제도 및 플라이앤크루즈(Fly&Cruise)* 운영 사례 등을 청취하고 인천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.

* 항공기와 크루즈선을 연계한 것으로 공항을 통해 들어온 승객이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상품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본격적으로 열리는 대만 크루즈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 시는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크루즈선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2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□ 행사개요

- 행사명 : 타이베이국제여전(ITF: 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, 台北國際旅展)
※ 공식 홈페이지 : <https://www.taipeiitf.org.tw/>
- 행사기간 : 2022.11. 4.(금) ~ 7.(월) / 4일간
- 행사장소 : 타이베이 난강전시관 1관
- 행사규모 : 40여개국 300개 기관, 1,000개 부스
- 관람인원 : 35만명
- 한국관 구성 : 61개 부스(549m²)
 - 국내기관 : 인천(1), 전남(1), 전북(1), 강원(1), 강릉(1), 경북(2), 대구(1), 세종(1), 제주(1), 한국공항공사(1), 인천공항공사(1), 공항철도(1)
 - 크루즈(6), 한류(2), 관광거점도시(4), 방한상품 특관부스(10), 무대(16), 기타(9)

□ 인천시 참가내용

- (홍보부스 운영) 크루즈 터미널 인프라, 기항지 콘텐츠 및 상품 등
- (인천크루즈관광설명회) 선사여행사 대상 인프라 및 신규콘텐츠 소개 등
- (대만항만국) 크루즈선의 인천 유치에 위한 협력방안 협의
- (기류항 및 가오슝항 방문 및 세일즈콜) 크루즈터미널 시설 방문 및 관계자 미팅, 크루즈 전문여행사 방문 및 상품개발 방안 논의